

(여자)아이들 '라이온', 미 빌보드 2주 연속 차트인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신곡 '라이온(LION)' 으로 2주 연속 미국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발표된 미국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Mnet '퀸덤' 파이널 컴백 싱글 '라이온'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5위에 올랐다.

이는 직전주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기록한 13위에서 8계단 상승한 순위이자, 2주 연속 차트 인으로, (여자)아이들은 한국 음원 사이트는 물론 빌보드까지 차트 여주행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한 등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순위를 기록하는 '소셜50' 차트에서 38위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인기를 증명했다.

(여자)아이들은 최근 종영한 Mnet '퀸덤'에서 '라이온'으로 레전드 무대를 꾸몄다. 방송 직후 Mnet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무대 영상은 13일 오후 3시 기준 조회수 887만을 넘어섰다. 지난 4일 밤 12시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1,320만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6인조 걸 그룹인 (여자)아이들의 이름은 여섯 명



의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자기 자신 ('I')이 여럿 ('들') 모였다는 의미로, 공모를 통하여 결정된 이름이다. 다른 걸그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힙합' 장르를 내세우며 지난해 데뷔했다.

데뷔 1년 만에 춤과 노래, 작사·작곡 등 음악 실력과 자신들만의 색깔을 인정받은 (여자)아이들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걸그룹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측정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미드 '프렌즈' 새 시리즈 논의 중...방영 25년 만

'전설의 미국드라마'라 불리는 '프렌즈'가 방영 25년만에 재결합 시리즈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할리우드리포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4년 시즌 10을 끝으로 종영한 '프렌즈'가 올해 방영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재결합 스페셜 시리즈가 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페셜 시리즈는 HBO 맥스(Max)에서 공개될 예정으로 제니퍼 애니스톤, 커트니 록스, 리사 쿠드로, 매트 르블랑, 매튜 페리, 데이비드 슈워 등 주연배우 6명을 비롯해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자들인 데이빗 크레인과 마르타 카우프먼이 재결합을 위해 현재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결합은 워너미디어가 내년부터 시청자에게

게 제공할 새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에 의미있는 콘텐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계약이 아직 완벽히 성사되지는 않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얼마 전 제니퍼 애니스톤은 한 방송에서 "원작만큼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프렌즈 리부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진심으로 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제니퍼 애니스톤은 지난 달인 스타그램을 개설하고 '프렌즈' 배우들의 완전체 모습을 공개해 전세계 팬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프렌즈'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시즌 10편이 방송된 NBC 시트콤으로 뉴욕에 사는 6명의 젊은 남녀들의 일상을 에피소드로 다뤄 큰 사랑을 받았다.

K스릴러 '청계산장의 재판' 미 드라마 제작 추진

한국 스릴러 소설인 '청계산장의 재판' (Hostages Trial)을 미국 드라마 시리즈로 제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콘텐츠 업체 고즈닉이엔티는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청계산장의 재판'을 미국 TV 시리즈로 제작하고자 그라티튜드 프로덕션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메이저 스튜디오인 유니버설 TV와 '파일럿 드라마' 제작 옵션 계약을 맺기 위한 사전 단계이다. 만약 협의가 잘 진행돼 파일럿이 만들어지고 정식 TV 드라마 제작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 메이저 방송사가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만드는 첫 드라마가 된다.

'굿 닥터'를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린지 고프먼 프로듀서가 제작에 참여한다. 린지 고프먼은 제작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계급의 불균형과 부패를 다룬 매우 시의적절한 이야기"라며 "치밀한 구조와 엄청난 반전 등 매력적 요소가 많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청계산장의 재판'은 '명량'을 집필한 박은우 작가의 범죄 스릴러 장르 소설이다. 상류층 자제들의 쾌락을 위한 범죄에 가족을 잃은 주인공들이 8년간 복수를 준비한 끝에 산장 인질극을 벌이고 현장을 전국에 재판 형식으로 생중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우수상 수상작으로, 고즈닉이엔티의 K스릴러 브랜드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1290호 숫자퍼즐 정답

9	1	3	7	5	8	4	2	6
8	7	6	4	9	2	5	1	3
4	2	5	1	3	6	7	8	9
1	3	9	8	4	7	2	6	5
6	4	2	9	1	5	3	7	8
5	8	7	2	6	3	9	4	1
7	9	8	3	2	1	6	5	4
2	5	4	6	8	9	1	3	7
3	6	1	5	7	4	8	9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아버지와 대화가 되지 않는 자식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과 뜻대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같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만큼은 부모의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전의 어느 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신사가 필자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자식 문제로 상담을 하게 되었다. 자식으로 딸만 셋을 두었는데 큰 딸과 작은 딸은 학교도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모두 어엿한 직장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유독 막내 딸만 학교에 다닐 때부터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지금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도 다니다가 중퇴하고 아직 취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하고는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가 막내 딸의 사주팔자(

四柱八字)를 보면서 건넌 이야기는 "따님은 아주 반항적인 기질이 강하지만 그래도 먹을 복은 타고난 사주가 되고 그래도 남들이 인정해 줄만한 손기술과 미식가(美食家)의 재능이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서 활동을 한다면 그래도 훗날 따님이 40대부터는 큰 재물을 축적하게 되는 운(運)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따님에게 꾸중을 하거나 눈치를 주거나 화를 내기 보다는 따님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신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막내 딸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화가 나서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가 다시 건넌 이야기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큰 소리를 내면서 간섭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화를 내고 꾸중을 한다고 해서 서로의 관계나 따님의 앞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자상하게 따님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필자의 말을 참조하겠다고 하면서 돌아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훗날에는 그래도 막내 딸이 언니들보다 효녀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론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